“日 후생연금 납입증명서 첫 확보 미쓰비시 강제노역 보상 길 열려”

5·18묘역 참배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日 변호인단 밝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우리(일본) 정부로부터 당신들이 미쓰비시사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제 6묘역 67번 묘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인들은 뒤늦게 가져온 소식이 미안해서인지 한참동안 눈물을 보였다.

그 곳에는 일제 강점기 나고야 미쓰비시사에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한 뒤 평생을 ‘위안부’라는 오해 속에서 생을 마감한 고(故) 김혜옥 할머니가 잠들어 있다. 5·18 부상자이기도 한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사로부터 사과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지난 7월 타계했다.

이날 오전 입국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 공동변호단 대표자 7명은 김 할머니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일궈낸 성과와 정권교체 이후 일본의 분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지원회’ 다카하시 회장과 ‘공동변호단’ 우치가와 단장 등은 “지난 7일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 4명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사에서 강제노역을 할 당시 후생연금을 납입했다는 증명서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납입증명서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일본식 이름과 함께 194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미쓰비시사에서 후생연금을 납입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사는 근로정신대 존재 자체를 부정했으며, 관련 서류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연금 납입증명서는 할머니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이를 토대로 할머니들이 받지못한 연금을 청구하고 보상 등을 위한 법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단의 우치가와 단장은 “전후처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도 우리에겐 유리한 정치 지형”이라며 “할머니들의 보상문제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문제를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 및 진보적인 야당들과 협력해 국회 내에 ‘한국인 강제연행 분과’ 신설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사무국장은 “(연금 납입증명서 발견은) 국가가 방관하고 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보상문제를 일본인과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직접 일궈낸 성과”라며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일본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대표들이 지나12일 고(故) 김혜옥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넋을 기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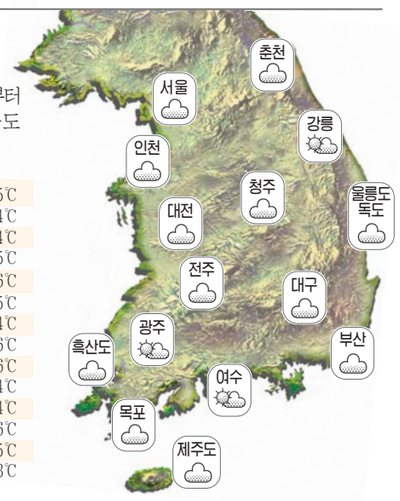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4분 해짐 18시 41분 달뜸 00시 37분 달짐 15시 35분

긴소매옷 챙기세요

낮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지역에 따라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17/25℃
목 포	흐림	17/24℃
여 수	맑은 뒤 흐림	19/24℃
완 도	흐리고 한때 비	17/25℃
구 례	맑은 뒤 흐림	15/26℃
해 남	흐리고 한때 비	14/25℃
장 흥	맑은 뒤 흐림	14/24℃
고 흥	맑은 뒤 흐림	15/26℃
순 천	맑은 뒤 흐림	17/26℃
영 광	흐림	15/24℃
진 도	흐리고 한때 비	16/24℃
전 주	흐림	15/26℃
남 원	흐림	12/25℃
흑산도	흐림	19/23℃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주의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9:29 22:49	03:26 15:14
여수	05:13 18:06	11:10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5(화)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날 씨						
최저/최고	17/27	16/28	17/28	17/28	17/28	17/27

코레일 광주지사 인력 5% 감축

광주본부로 조직 개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광주지사는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광주와 전남 서부지역 철도를 관할했던 광주지사가 14일 광주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지사 관계자는 “코레일은 핵심 사업분야 육성과 고객 위주의 조직운영을 위해 산하 17개 지사를 12개 지역본부로 슬림·광역화했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본부는 호남지역 철도교통의 중추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3년 전보다 인력이 5%(52명) 줄어든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광주본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경부선 KTX(1일 106회 운행, 승차율 57.5%)에 비해 호남선 KTX(1일 36회, 승차율 36.2%)의 승객이 훨씬 적은 만큼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지사는 또 “호남고속철도 건설, 광주~대구간 철도부설 등 노선 확충, 여수엑스포와 F1 대회 철도 지원 등 호남지역 숙원사업의 성공을 위해 본부에 지역민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의 이번 조직개편으로 호남지역에서는 기존의 광주지사(광주시), 전남지사(순천시), 전북지사(익산시)가 통폐합 없이 그대로 지역본부로 남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등산 옛길 탐방기 모집

광주시 무등산관리사무소(소장 임희진)는 지난 5월15일 시민들에게 개방된 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등산 옛길 1구간(7.75㎞) 탐방기를 공개모집한다.

탐방기 형식은 시나 수필 등 자유로우며, 무등산 옛길을 찾은 적이 있는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달 5일까지 우편(광주시 북구 무등로 2030 무등산관리사무소)이나 홈페이지(http : //mudeungsan.gjcity.net)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관리사무소는 총 10편을 뽑아 우수상 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장려상 5명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우수상과 장려상은 다음달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무등산 옛길 2구간(4.12km) 개방 때 함께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원평가제 선도 학교 광주·전남 143곳 추가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전면 실시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앞두고 광주·전남 등 전국 1천551개 초·중·고교를 교원평가제 선도(시범) 학교로 추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교원평가제 선도학교는 상반기 지정된 1천570개교를 포함해 총 3천121개교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00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159개교, 경북 137개교, 대전과 충북 각 119개교, 전남과 경남 각 110개교, 광주 33개교 등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